기독교 박물관 소감문

20211752 허지웅

-고대의 기독교

한국에 기독교는 흥선대원군 무렵의 시기부터 들어온 줄 알았으나 경교 유물과 비문을 보고 고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기했다. 수업시간에 배운 부분과 조금씩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다.

-우리나라의 천주교 전파기

동양과 서양이 서로 교류를 하며 중국에서 천주교가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정조시기에 많이 대중화된다. 역사 시간에 배운 기존의 세도 정치의 부패로 인한 여러 부조리로 인해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이 시기에 평등사상을 주장하는 천주교가 나타나서 빨리 전파된 것 같다. 천주교의 전파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기존의 유교, 도교 사상을 합친 동학 등의 사상이 새로 생겨나 동학 농민 운동 등의 여러 역사적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천주교의 박해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 기존의 유교사상과 충돌하여 처음에는 잘 전파되지 않았다. 유교사상은 장례를 매우 중요시하는데 천주교는 장례를 치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동안 천주교는 부모가 없는 종교로 천대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러 전통 문화들과 융합되며 여러 해답이 나오게 되었다. 부모님의 개념을 귀납적으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결국 태초의 인간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성경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이 생각보다 천주교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서 놀랐다. 제너럴 셔먼 호 사건 때의 선교사가 죽었을 때 성경을 한 군졸이 받고 한자를 몰라서 벽지에 붙인 에피소드도 재미있었다.

-신사 참배

교수님께서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신사 참배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놀랐다. 기독교와 일본의 심사참배는 관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일본이 그저 식민지 전쟁과 여러 약탈 전쟁에서의 전쟁 범죄자들을 패를 놓고 참배하는 것 인줄 알고 있었다. 윤동주 시인과 관련된 에피소드에서도 신사참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기독교와 관련 있었던 것이 신기했다. 신사 참배를 하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되는데, 전쟁 전범들을 찬양하는 반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를 뜻하는 의미인 하나님 만을 믿는 종교이다.

-민족 운동

숭실 학당을 나온 많은 분들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당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해주셔서 감사했고, 숭실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신사 참배 거부와 폐교

일제 강점기 시기의 한국인들은 여러 자유의 제제를 당했었다.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을 치루고 있을 당시 한국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사용하기 위해 물적인 여러 자원들을 강탈하였다. 인적 자원으로는 노동력 착취를 위해 징병제를 채용하고 위안부로 여자들을 납치하는 범죄 행위를 하였다. 또한 한국의 사람들을 일본의 사고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 심사 참배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숭실은 이를 거부하였고 폐교 당했다고 한다.

-근대화와 서양 문물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서학 또한 전파되었다. 여러 서양 문물들이 박물관에 예시로 남아있다. 정약용 선생님과 그의 형제들 또한 서양의 과학 기술을 공부하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정약용, 홍대용 선생님 등이 실학이 생겨나게 되었다. 여러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학문을 연구하며 우리나라가 더 근대화되었다. 서양에서 여러 문물이 들어왔는데 혼천의가 들어왔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온전히 보관되어 있는 양의 현란도와 곤여전도 또한 존재한다.

-개화 운동의 전개

여러 독립 운동들이 천주교 또는 기독교와 힘을 합쳐 일어났다. 임진왜란에 승군들이 의병을 일으켜 싸웠듯이 종교로 한데 뭉쳐 독립 운동을 하였다고 한다. 현재 박물관에는 안중근 의사님의 손 사진과 안익태 작사님이 작곡한 애국가 악보 그리고 태극기가 존재한다.

-느낀점

학교에 존재하는 박물관이라 규모가 작고 볼 것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꽤나 우리 나라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천주교의 여러 산물들을 볼 수 있었다. 나의 삶에 종교는 영향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천주교가 박해받고 선교사들을 목숨을 잃을 위기임에도 포교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인상 깊게 본 부분

고등학교 시절 한국사 시간에 배운 곤여 만국지도가 우리 학교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했다. 지도들을 보면 그 당시 만든 사람의 가치관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지도가 동그란 두부분으로 나뉘어 그러져 있는 현대의 지도와 비슷해 신기했다.

다음에 학교를 갈 기회가 있다면 숭실대학교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을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